

‘S클래스’ 마장마술의 진수 기대하시라

17~18일·22~25일 전국승마대회 최상위 레벨 마장마술·장애물 뽐내 19일부터 3일간 ‘영호스컵’ 첫 개최

11월에는 승마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7일부터 경상북도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 영호스컵, 경주퇴역승용마 품평회, 스포츠말 품평회 등 승마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대회가 펼쳐지는 1주일 동안 약 300두의 말이 모여 승마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17일에는 경주퇴역 승용마의 품평회가 열린다. 경주마로 활약하다 승용마로 제2의 삶을 시작한 퇴역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대회다. 스프레이 뿌리기, 우산 펼치기, 풍선 올리기 등 돌발 상황에서 말의 침착성을 시험하고, 마장마술, 장애물 등 기본 승마 능력을 평가한다.

19일에는 제4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열린다. 스포츠말 품평회는 2~3세 어린 국산마의 체형, 보행, 프리점핑 등 승용마



승마대회 종목인 장애물 경기 모습. 11월 셋째 주 경북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 영호스컵, 경주퇴역승용마 품평회, 스포츠말 품평회 등 승마 이벤트가 열린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행사다.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 우수 국산마를 조기 선발하고, 어린말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호스컵’

이 최초로 열린다. 영호스컵은 올해 최고의 국산 어린말을 선발하는 대회로, 앞서 열린 두 번의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를 통해 선발된 말이 출전할 수 있다.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의 결승전 성격으로

우수 국산 승용마를 조기에 발굴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산 최고의 말들이 겨루는 대회에 걸맞게 국내 최대 규모인 조련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제48회 한국마사회장배 전국승마대회도 17~18일, 22~25일에 두 번에 걸쳐 18개 종목을 시행한다. 한국마사회가 주최, 대한승마협회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17일부터 2일간은 마장마술, 복합마술, YH 경기가 펼쳐지며, 22일부터 4일간은 장애물, 복합마술, 국산마, 경주퇴역마, YH 경기가 진행된다. 마장마술과 장애물 최상위 레벨 종목 S클래스가 개최되기 때문에 국내 정상급 선수들의 승마기술을 구경할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각종 승마 대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나들이로 승마장을 찾아 승마의 매력을 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해의 말복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마사회는 6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해의 말복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주 동물복지 인증 및 이력제 전문 공기업의 CEO이자 경주퇴역마 국제포럼 위원인 수의사 엘리엇 포브스가 강의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흐름, 경마와 관련된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경주퇴역마 국제 포럼의 개요와 발전방향, 경주마 복지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7일에는 부경 경마공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8일에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말복지 업무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마사회, 예비 창업자 대상 멘토링 강연

한국마사회는 10월 31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 유튜브 바자주주(본명 최서영)를 초청해 멘토링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을 들은 예비 창업자들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 공공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자들이다. 2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바자주주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IT·테크 리뷰어로서 혁신의 가치를 소개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대통령배 5연패’ 김영관 조교사 “월드컵 도전”

4년간 트리플나인과 우승 호흡 이어 올해는 뉴레전드 반마신차 V 이끌어

김영관 조교사가 대통령배 5연패를 달성했다. 2013년 우승(경주마 인디펜드)을 포함하면 통산 6번째 대통령배 우승이다.

김영관 조교사는 자타공인 한국 경마 최고의 조교사로, 2004년 데뷔 이후 대상경주 우승을 58번이나 차지했다. 2006년에 처음 선정된 이후 총 10회나 ‘최우수 조교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산마 훈련에 감점을 보이며, 대표 소속마인 미스터파크, 트리플나

인, 파워블레이드 등이 모두 한국경마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트리플나인과 최고의 공함을 보여 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번의 대통령배 우승을 함께 했다. 트리플나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42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해 단일 경주마 수득 상금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3일 열린 이번 제16회 대통령배의 우승은 뉴레전드가 김영관 조교사와 함께 했다. 뉴레전드는 해외종축사업인 케이닉스 선발마로 미국 유학을 했으며, 국내 도입 당시 3억 원의

몸값을 기록했다. 화려한 이력으로 대통령배 경주 시작 전부터 우승 유력마로 기대를 받았다. 9번이라는 불리할 수 있는 외곽 출발번호에 배정됐지만 처음부터 빠르게 선두권을 차지했고 경주 중반 추입을 시작한 경쟁자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2위와 반마신차(약 1.2m)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영관 조교사는 2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미국 브리더스컵에서도 블루치퍼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영관 조교사는 “한번 우승하기도 힘든 대통령배를 5연패하고 블루치퍼가 브리더스컵 3위에 올라 기쁨이 2배다”며 “뉴레전드와 블루치퍼 모두 2020년 두바이 월드컵에 도전할 계획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 경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3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16회 대통령배 시상식에서 포스를 취하고 있는 김영관 조교사(왼쪽)와 우승마 뉴레전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축구팬 41% “무패행진 리버풀, 맨시티전 승리”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www.ktoto.co.kr)는 “9일부터 11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리버풀-맨체스터 시티(맨시티·12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40.68%가 홈팀 리버풀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32.53%로 나타났다. 원정팀 맨시티의 승리는 26.79%를 기록했다.

승점 25점(8승1무2패)으로 EPL 2위에 올라있는 맨시티는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두 리버풀도 승점 31점(10승1무)으로 리그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는 등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리버풀이 안방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다.

EPL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레스터 시티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안방에서 브라이턴&호브앨비언(14.08%)을 맞이하는 맨유는 67.76%를 차지해 우위를 보였고, 리그 3위를 질주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의 투표율은 52.54%로 23.03%에 그친 아스널보다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토토팬들은 예상했다.

라리гада에서는 리그 2위에 올라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68.78%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무승부 예상은 16.38%를 기록했고,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는 에이바르의 승리 예상은 14.84%를 얻는데 그쳤다.

안방에서 경기를 펼치는 헤타페와 발렌시아도 각각 58.13%, 55.93%를 얻어 승리 가능성을 높였고, 세비야(54.55%), 비야레알(54.36%), 아틀레틱 빌바오(52.14%) 역시 과반수 투표율을 넘겼다. 이번 승무패 39회차는 오는 9일 오후 8시50분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결과가 발표된다.

토토빙상단, 전국쇼트트랙대회 ‘금3·은2’ 쾌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7일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각 종목에서 산뜻한 출발을 선보인 스포츠토토빙상단이 2019~2020시즌에 도전할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은 올 시즌 첫 대회인 제36회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휩쓸었다. 남자 500m에서는 김도겸과 한승수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고, 여자 500m와 1000m에서는 이소연이 2관왕에 등극했다.

김도겸과 이소연은 뒤이어 열린 제35회 회장배 대회에서도 각각 남자 500m와 여자 1000m에서 1위를 기록하며 2개 대회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현재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김동욱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4월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된 김동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남자 쇼트트랙대표팀의 선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두 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제54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2019~2020 ISU 월드컵 파견선수 선발전 남자 5000m에서 엄현호가 1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를 달



고, 1500m에서는 김철민이 2위에 올라 대표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오는 15일 벨라루스에서 열린 예정인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를 시작으로 국제대회 일정에 돌입한다. 스포츠토토빙상단 관계자는 “올 시즌은 첫 대회부터 각 종목에서 깔끔한 출발을 보인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로 어느 때보다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시즌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00원부터 즐기는 토토 소액·소조합도 재미 UP

케이토토(www.ktoto.co.kr)는 7일 “스포츠베팅의 진정한 즐거움은 건전한 소액 참여와 소조합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스포츠토토는 게임당 100원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최대 구매 한도 역시 베팅맨(www.betman.co.kr)에서 5만 원, 그리고 전국 6500여개의 판매점에서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몰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 참여해도 충분히 스포츠 관전과 응원의 재미를 높일 수 있고, 완벽한 분석으로 적중해 성공한 경우 급진적인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내 스포츠발전에 쓰이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스포츠토토의 구매문화는 ‘일석삼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토토는 소조합(2~3경기)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스포츠토토의 최고 인기 게임인 ‘프로토(PROTO)’는 최소 2경기부터 최대 10경기까지 조합할 수 있다. 조합 경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배당률이 올라가지만, 한 경기만 틀려도 적중에 실패하게 되는 프로토의 특성상 적중률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자신있는 경기만을 선택해 소조합으로 적중의 기쁨을 누리는 스포츠팬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24시간 사행성 높은 게임과 ‘한탕주의’ 등으로 스포츠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이로 인한 2차 피해와 범죄행위 조장 등으로 인해 다양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